

2022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 2차 심사 (다큐멘터리 부문) 종합심사평

본 공모의 2차 심사에는 제출된 40개의 기획안 중 중도 포기한 1개의 기획안을 제외한 39개의 기획안이 심사되었으며, 7인의 심사위원들이 꼼꼼히 검토해주셨습니다.

금번 기획안들은 한결같이 세계의 변동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거의 모든 기획안들은 최근 세계의 급격한 변동 속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발굴하고, 그 상황 속에서 투쟁하고 버텨내는 인간형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흔들리는 진동만큼 다큐멘터리 기획자들이 펼친 안테나의 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오랜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공감하게 하는 깊은 역사의식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이자 세계의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메시지에 도달하려는 시도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국지적 사건과 경험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활약을 염두에 둔 기획안들이 제출됨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전적 고백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의 시대를 지나 보다 매니악하고 보다 전문적이며 상업적 임팩트를 높이려는 시도들은, 제작자들이 이미 다큐멘터리 관객의 폭을 국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획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획안의 강렬한 주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방송 다큐멘터리로서 요청되는 시의성을 적절히 탑재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 동시에 독창적인 접근법을 제안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면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밝힙니다.

취재와 관찰이라는 다큐멘터리의 기본적 미덕과는 별개로 시의성과 접근법은 제작자의 관점을 효율적으로 드러내고 상업적 임팩트를 높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며, 동시에 관객을 지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현명한 안내자라는 점 역시 이번 심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기획안들이 훌륭한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제작되어 관객들의 뇌리에 꽂힐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